■전례성가: 입당 27 | 봉헌 216 | 성체 157 | 파견 227

■**제1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6,12-16

12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3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 준다. 14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15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 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16 지혜는 자기에게 맞갖은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4,13-18

13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15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 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16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17 그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 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8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1-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2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5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7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11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12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13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November 8, 2026 연중 제 32 주일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 준다 (지혜 6,13).

He hastens to make herself known
to those who desire her (Wis 6,13).

천주교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Our Lady of Holy Rosary in Indianapolis

▪ 성 당 : 753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317) 542-0863 (문자메시지 가능하며, 선호합니다)
▪ 홈페이지 : indykcc.org | 이메일 : indykcckorea@gmail.com
▪ 사제관 : 755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사목회장 : 공성현 니콜라오 | 담당신부 : 김병조 베드로

▪ 주일미사 일요일 오전 11시

■ 전례 봉사자

	연중 제32주일(11/8)	연중 제33주일(11/15)	연중 제34주일(11/22)
해설	이상진 프란치스코	정명호 미카엘	최낙현 미카엘
독서	정원준 | 최아영	? | 이남희	정석훈 | 이상진
복사	차루아 미카엘 이지향 다니엘라	박서인 로즈마리 박정인 헬레나	박한준 라파엘 차루아 미카엘
반주	한혜경 아녜스	공승윤 수산나	최아영 아녜스
제대	공승윤 수산나	공승윤 수산나	곽동화 소화데레사
예물	이지성 | 정휘인	류지안 | 남고은	리노아 | 강예지

*독서 순서 관리: 김은경(파울리나) & 장재원(베드로)

■ 공지사항

▪ 성전에 앉아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성전에서는 소리를 낮춰 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디애나 한인회 2026년 장학금 지원 안내
1) 고등학교 시니어 – 대학교 시니어
2) 부모 연소득 $60,000 이하
3) GPA 3.4 이상
4) 인디애나 거주, 합법적인 신분
5) 서류: 교사, 목사 또는 지역사회 인사 추천서, 신분증, 학생증, 부모 소득 증빙(W-2 또는 W-9)

■ 우리들의 정성 (11/01/2026)

▪미사 봉헌금: $568.00
▪교무금: 김세동(11), 김영애(11), 신창식(11), 이상진(11-12), 이영순(11), 정소훈(11), 최정자(11-12), 문승희(11-12)

교무금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적어도 한달 중 하루의 수익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자는 취지로 자신의 한달 수입의 1/30(3.3%)이라도 책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납부시 교무금 봉투에 '한글 이름', '세례명', '금액', '납입하는 월'을 정확하게 적으신 후 교무금함에 넣어 주세요. 납입 내역은 다음 주 주보에, 월별로는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 우리 공동체 11월 축일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류지안(레오1세|10일), 리노아 릴리안 로아이자(레오1세|10일), 남현옥(엘리사벳|17일), 이현숙(엘리사벳|17일), 공성현(니콜라오1세|13일), 진선미(카타리나|25일), 이영규(안드레아|30일), 이종성(안드레아|30일)